

# 냉난방비·식품비 지원... 할머니들 “경로당이 최고 피서지”

## 폭염 속 광주 도심 경로당 둘러보니

18일 오후 3시 광주시 동구 계림동 ‘유림경로당’에선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경로당이 자리잡은 주택가 골목 공기는 장맛비 때문에 후텁지근했지만, 10평(35㎡) 남짓한 경로당 안은 최신식 에어컨이 쉴 새 없이 찬 공기를 내뿜어 쾌적했다. 이곳에서 60~80대 할머니 20명은 화투 놀이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무더위를 날려 보내고 있었다. 선풍기에 바람을 쐬며 안마의자에 누워 피로를 푸는 할머니도 보였다.

할머니들은 “구정에서 냉방비를 지원해줘서 오갈 데 없는 우리가 호사를 누린다. 피서가 따로 있나, 여름엔 경로당이 최고”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17일 찾은 북구 오치동 럭키아파트 경로당 역시 시원하고 쾌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11명의 할머니가 용기종기 모여 텔레비전을 보거나 담소를 나누며 불볕더위를 피하고 있었다.

17일을 전후로 약 1달간 광주 시내 경로당 11곳을 둘러봤더니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경로당은 한 곳도 없었다. 대체로 시원하고 쾌적했으며 안마기, 에어컨, 주방 설비 등을 갖춰 노인들이 여름을 나기에 무리가 없어 보였다. 경로당마다 노인들로 북적였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운영을 중단했던 경로당이 여름을 맞아 호황기에 접어든 것이다.

다만 노인들이 ‘최고의 피서지’로 꼽는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을 만나기가 어려웠던 점은 의외였다.

의문은 야외 공원 등지에서 할머니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풀렸다.

계림동 유림경로당 등 11곳 할머니들 TV 보거나 담소 나눠  
할아버지들은 광주공원 등서 바둑·장기 두며 ‘망중한’ 즐겨  
“여초현상에 가고 싶어도... 남성 경로당 별도 운영했으면”

17~19일 북구 우산근린공원에는 할아버지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장맛비가 쏟아진 18일을 제외하고는 그늘마다 간이 의자와 테이블을 펼쳐두고 바둑과 장기, 화투 놀이를 즐기는 할아버지들이 즐집아 50명을 웃돌았다. 30도를 웃도는 날씨였지만, 삼복더위를 원망하는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더위가 느껴지면 옷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느긋하게 부채질을 했다. 할아버지들의 주름진 얼굴에선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테이블 장기간을 사이에 두고 “장이오”라고 외치는 할아버지들의 목소리는 활기찼다. 혼수를 두는 노인도 관전하는 노인도 9할은 할아버지들이었다.

공원에서 만난 허순재(68) 할아버지는 “경로당에서 텔레비전만 보는 것보다 좋은 공기 마시며 바둑과 장기를 두면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든다”며 “야외에서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즐겁고 귀하다”고 말했다. 정대복(70) 할아버지는 “코로나 때문에 실내에 있기 무서워 경로당에 가지 않는다”며 “바깥 바람이 에어컨보다 좋다. 힘이 남아 있을 때 바깥에서 친구들과 놀고 싶다”고 말했다.

일부 할아버지들은 경로당은 가고 싶는데 ‘여초현상’ 등 여러 이유로 망설여진다고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조현갑(83) 할아버지는 “경로당에서 내가 할머니들랑 밥 차리고 요가를 할 순 없지 않느냐”며 “할머니들과 달리 남자들이끼리는 친해지기 힘들다. 내 친구들도 모두 비슷한 생각이다. 친구들이 여기에 있는데 경로당 가서 새 친구 사귀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경로당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댄스·요가 등 할머니들 위주로 짜여 있다며 불만을 내비치는 이들도 일부 있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해 일부 경로당은 남성 전용 공간을 분리해 별도로 남성경로당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광주 1352개 경로당 중 서구 삼익경로당 등 48곳이 남성경로당을 운영 중이다. 자치구별 차이는 있지만, 광주 5개 자치구는 시비와 구비, 국비 등을 합쳐 경로당 1곳당 연간 300~500만원 수준의 운영비를 지원 중이다. 운영비와 별개로 냉·난방비와 양곡비도 지원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5개 자치구와 논의를 거쳐 광주 어르신이라면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경로당에서 즐겁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18일 오후 광주시 동구 계림동의 유림경로당에서는 할머니들이 모여 화투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위), 17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우산근린공원에서는 할아버지들이 삼삼오오 모여 친목을 다지고 있다.

## “동기 폭행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생 퇴교는 정당”

### 광주지법, 교육원생 직권퇴교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정

동기생 폭행 등 물의를 빚은 해양경찰 교육생에 대한 직권 퇴교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 판사 박현)는 A씨가 해양경찰교육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처분 취소 소송에서 14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021년 상반기 신입경찰(순경) 채용시험에 합격한 A씨는 2021년 10월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 입소해 교육을 받던 중 동기생에 대한 두 차례 폭

행과 욕설로 인해 모두 80점의 별점을 부과받았다. 점수 시간에 동기생 허벅지를 두 차례 발로 차고, 침대에 누워있던 동기생의 목을 누른 행위가 물리력 행사 등 폭행으로 간주돼 각각 30점 별점을 받았고, 욕설로 별점 20점을 추가로 받았다. 해양경찰교육원은 별점 40점 이상을 받은 교육생은 직권 퇴교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같은 해 11월 16일 A씨에 대해 퇴교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별점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

록 한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고,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며, 저지른 행위와 비교해 처분(퇴교 처분으로 인한 공무원 신분 박탈)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생활지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 모두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있고, 물리력 행사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며 “공무원인 원고에 대한 퇴교처분은 또한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전남경찰, ‘수도요금 징수 특혜 의혹’ 여수시 압수수색

경찰이 수도 요금 징수를 둘러싼 특혜 의혹을 잡고 여수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19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남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지난 15일 여수시 상수도사업단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수도 요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체에 영입용 수도 요금보다 저렴한 가정용 요금을 적용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최근 7년 치 수도 요금 징수 자료 등을 확보해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여수시가 최근

상수도사업단 업무 처리 과정을 감사한 결과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시 관계자는 “직원의 단순 업무 실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수도 요금 징수 등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흐름이 있다.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광주경찰, ‘직원에 갑질 의혹’ 경찰 간부 감찰

광주경찰청이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 간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19일 광주경찰청은 갑질 의혹을 받은 광주 동부경찰서 A과장(경정)에 대해 감찰 조사에 들어갔다.

A과장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식사비를 내게 하는 등 부당한 일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 넘은 갑질을 했다는 다수의 증언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A과장은 출근길에 자신의 짐을 들게 하거나 폭

언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A과장은 지난 2014년 의경 중대장을 맡았을 때도 의경과 직급이 낮은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 중징계인 ‘감봉’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A과장의 지난 징계는 실효가 끝나 가중조건은 되지 않지만, 참고사항은 될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사결과를 본청에 올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해남서 산악회원 30여명

### 벌떼 공격 받아...대부분 경상

해남 산속에서 식사중인 산악회원 30여명이 벌떼에 공격을 받았다.

19일 오전 11시 30분께 해남군 계곡면 흑석산 자연휴양림 내 쉼터에서 산악회 회원들이 벌에 쏘였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다.

산행 중 산속 쉼터에 자리를 잡고 점심을 먹던 중 말벌 떼가 갑자기 회원들을 습격하면서 모두

31명이 벌에 쏘였다.

A(80) 씨 등 6명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119 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긴급이송됐고, 나머지 부상자 25명은 휴양림 측의 차량으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현장에 있었던 46명의 산악회원 중 31명이 벌에 쏘였지만 대부분 경상자로 파악됐다.

식사하는 과정에서 회원 중 한 명이 실수로 말벌 집이 매달린 나무를 건드리면서 말벌 떼가 달려든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투자자 모심

1. 자금 - 10억원 이상
2. 기간 - 2년~3년 정도
3. 물건 - NPL, 금매물, 경매특수물건
4. 수익 - 연 20% 이상 법적 보장
5. 보장 - 근저당 또는 소유권 이전
6. 지역 - 경기, 수도권, 전남/광주
7. 방식 - 단독 또는 공동투자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  
주식회사 오 천  
H. 010-3605-5000

## 신안동, 대인동, 땅, 매매

- 1.新安동 176평, 대인동 156평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월 300만원 정도 수입중
4. 매매 - 평당 1200만원씩, 조정가

문의. 010-3605-5000